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우. 137-747)
TEL : 3460-1096 FAX : 3460-1162 E-mail : shlee@kiep.go.kr

● 발행인 : 蔡旭 ● 편집인 : 金尙謙

Vol. 11, No. 4, 2008년 12월

제 16차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APEC 제16차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금융위기예의 대응

- 18개월 뒤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확신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지지한다.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재정적 조치들을 취할 것임. 향후 12개월 내 서비스와 상품 무역 및 투자에서 새로운 장벽을 추가하는 조치 등을 자제기로 함

◆ 지역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된 2008년 이행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속적 이행을 위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 분석을 2009년도 과제로 지시함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2010년까지 역내 교역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의 지속적 이행 프로세스와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원활화 행동계획(FAP)을 승인함

◆ 여타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 규제개혁 모범사례 지침서를 채택하고 구조개혁 관련 제도에 대한 자율점검 등을 수행한 2008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의 결과를 환영

◆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이 21세기 기업 활동의 주요 부분이라는 데 공감
- 부패가 역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금융시장 규범에 대한 리마 반부패 선언'과 'APEC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을 환영

◆ 환경적 도전과 재난관리 제고

- 2009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2012년 이후 국제기구 변화 체제 합의를 위한 공조에 나설 것을 다짐

제 16차 APEC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첫째 날인 22일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둘째 날인 23일에는 지역경제통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에 대한 노력 강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정상선언문의 '세계경제에 대한 정상성명'이라는 별도의 특별성명을 통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WTO 무역협상 돌파구의 연내에 마련과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결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금융 위기

회원국들은 현 세계 금융 위기를 맞아 APEC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개선, 규제·감독의 본연의 자세, 국제금융기관의 역할, 실물 경제의 침체에의 대응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세계 경제·금융 문제 전반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물인 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방침을 지지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더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APEC차원의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APEC 참여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는 회원국에 대해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협력,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강화의 유효성을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실물 경제에 관하여 아시아의 성장력 강화와 내수 확대를 위하여 인프라 정비, 사회적 세이프티 넷(safety net)의 정비와 빈곤 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정상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정상 선언과는 별도로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금번 APEC 정상회의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금융 위기 및 세계 경제 침체에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의 국제협력 강화 의지를 결집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2페이지에 계속

2. WTO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

정상들은 WTO·DDA협상이 지극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원칙 합의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키로 약속하였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세계 경제의 상황으로 인하여, 각 회원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의 향후의 진행 방식에 대해 유익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으며,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12월 내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월에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향후 12개월간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G20 정상회의의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 결정을 확인하였다.

3. 지역경제통합

정상들은 APEC 고유이슈로서 지역경제통합(REI) 이행계획에 대한 2008년 작업 성과를 평가하고, 2009년 작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 FTAAP의 선택사항 및 전망의 검토, 구조개혁 등 올해에 실시된 폭넓은 분야에의 성과와 내년 이후의 작업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2008년 이행 보고서를 보고받고 2009년의 과제를 지시하였으며, FTAAP 관련 2009년 작업계획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내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2010년 의장국을 맡게 될 일본이 FTAAP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FTAAP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조개혁작업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원국들의 국내조치(behind-the-border measures) 개선과 조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식량·에너지 안보의 촉진

회원국들은 식량·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농산품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폐와 대체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농업·식량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세계 식량 증산, 수출 규제의 철폐를 포

함한 무역 시스템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행동 계획의 책정과 Peer Review를 통한 진전 상황의 모니터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가를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믿을 만하고, 깨끗하면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역내 경제번영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에너지 시장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무역·투자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원국들은 바람직한 기업 경영과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발성에 기초한 CSR 활동이 21세기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공감하고, 역내 CSR 실천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다자회의체에서 개발된 CSR 관련 지침을 고려하는 책임감 있고, 투명한 기업관행을 장려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 정부, 피고용인,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6. 기후 변화 문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 변화가 APEC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에 대한 합의 형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특히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enhagen 2009)에서 post-2012 체제 합의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7. 인간 안보

회원국들은 테러, 긴급사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비, 국가적 재난관리 능력 강화 등의 중요성과 이에 대응한 국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페루가 제안한 「재난 위험 경감,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APEC 전략」, 중국이 제안한 「재난대응과 협력에 관한 APEC 원칙」, 「재난관리 능력배양 수요 점검」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다음은 정상선언문(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의 요지이다.

지역경제 과제

1. 지역경제 통합의 추진

우리는 작년 지역경제통합의 강화를 위한 장기적 어젠다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2008년 진전보고서를 환영하며, APEC 지역경제 통합(REI) 어젠다의 금년의 성과에 더하여 이 어젠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진전을 가속하기 위하여, 2009년의 REI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대한 우리의 목표는, 단일 회원국, 양자간, 지역간, 그리고 다각간의 자유화 노력과 합의에 의해서 달성된다. 우리는 APEC의 REI 어젠다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맹세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진전을 환영하며, 성장과 개발 및 최근 세계적 경기후퇴로부터의 시급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보고르 목표 달성이라는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다.
- 우리는, 장기적 전망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전망 및 방법(Options)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각료 및 실무자에 대하여 FTAAP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추가적 분석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 우리는, 역내 고품격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들 협정간의 보다 큰 일관성과 동질성을 촉진하기 위한 5개의 새로운 모델 조치를 환영한다.
- 우리는, 2010년까지 역내 교역비용 5% 추가 감축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PEC 제2차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II)의 지속적 이행 프로세스와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APEC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을 승인한다.
- 우리는, 역내 금융시장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서 APEC 재무장관들이 시작한 능력 구축 활동을 환영한다.
- 우리는, 역내 지식재산권(IPR)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창조와 혁신의 증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IPR을 보호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IPR 전문가와 정부 사이의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

-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 및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 우리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APEC비즈니스 자문위원회(ABAC)의 견해와 작업을 환영하며, REI어젠다에의 중소기업(SMEs)의 적극적인 참가를 호소한다.
- 우리는 각료 및 실무자에 대해, 이행 보고서에 기술되고 있는 REI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본 어젠다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2009년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2. 구조개혁의 실시

우리는, 구조개혁 실시를 위한 정상 어젠다(LAISR)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원활화, 및 경제 기술 지원 협력이 라고 하는 세 기둥을 통합하는 APEC 어젠다의 핵심 요소라는 것에 공감한다. 우리는, 2008년 8월 멜버른에서 개최된 구조개혁 장관회의(SRMM)의 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회원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APEC경제정책연간 보고서의 발행 및 6월에 통상장관에 의해서 승인된 민간 부문의 발전을 위한 작업 계획의 추진을 환영한다.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식량 안보

우리는,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의 식량 부족과 급변하는 세계의 식량 가격이, 과거 10년간 우리가 달성한 빈곤 퇴치와 실질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세계 식량 안전 보장 위기에 관한 유엔 대책반(task force)에 의해 책정된 포괄적 행동 방안을 지지한다.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의 대처

1. 아태지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촉진

우리는,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진전에 따른 글로벌화가 모든 APEC 회원국과 비즈니스 부문 및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한다. CSR은 무역과 투자가 경제성장,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의 기대가 전 세계의 소비자나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자발성에 근거한 CSR 활동이 21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비즈니스 방식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2. 역내 부패 방지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부패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을 인식하고, 특히 금융활동의 부패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효과적인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금융시장 규범에 대한 리마 반부패 선언' 과 'APEC 공공 및 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 을 환영한다.

3. APEC 협력과 능력배양

APEC의 경제·기술 협력(ECOTECH) 프로그램은 APEC 회원국이 각 분야에 대하여 능력을 구축한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는, 오사카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ECOTECH 활동 실시의 기반이 될 마닐라 실행계획의 우리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개인적, 경제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려면, 우리 회원국의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 APEC 교육 네트워크를 지지하며 역내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신형 조류 인플루엔자 및 HIV/AIDS등의 전염병을 포함한 건강 관련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내 능력의 구축에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각 회원국이 건강에의 위협에 대응하여, 후생, 무역 및 투자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식품 안전, 무역 원활화의 개선, 그리고 역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성차별이 우리 회원국에 계속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염려하고 있다. 무역, 경제정책의 책정에서는 성문제를 고려하도록, 또한 여성이 역내 및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고 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PEC회원국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맹세하였다.

역내 인간안보 강화

1. 테러방지 및 역내 무역안전 확보

인간 안보를 강화하여 자연재해 및 테러문제 등에 대해서 역내 비즈니스와 무역을 보호하는 것은 APEC의 지속적인 우선 사항이다.

우리는, 국제 테러와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러한 위협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무역의 흐름, 금융, 교통, 여행 통신 및 근대 기술을 악용하는 테러리스트의 시도는 용서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사람, 물자, 투자의 흐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경제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 재해 리스크 감소, 재해 예방

우리는, 역내 재해 리스크 감소, 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 부문, 국제기관 및 비정부 단체와 한층 심화된 국제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는, 재해 리스크의 경감, 긴급 사태에의 대비, 및 국내적인 재해 관리 능력의 구축에 보다 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3.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 개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2009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아래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대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너지 안보·청정 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 선언에의 우리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하였다.

APEC의 강화

APEC은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훌륭한 포럼이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에 대응해 APEC의 제도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맹세하고 있다. APEC내 협력 활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적 과제에 더욱 더 좋은 성과로 공헌할 수 있다.

우리는, 제20차 APEC각료회의에 있어서의 각료 공동 성명을 전면적으로 승인하였다. 우리는, 2013년에 인도네시아가 APEC을 주최한다는 제의를 환영하였다.

다음은 특별성명(세계경제에 대한 정상성명)의 요지이다.

우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은, 11월22일 페루에서 경제의 신뢰 회복과 역내 장기적인 성장의 유지를 위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과 APEC회원국이 개별 및 집단적으로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제16차 정상회의를 개시하였다.

우리는, 향후 18개월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금융부문을 안정시켜, 경제성장 강화 및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이례적 조치를 이미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충분한 자금 확보 및 역내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신용 기관, 국제금융기관(IFIs) 및 민간 은행에 의한 대처를 지지한다.

현재, 금융 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APEC의 금융 부문 능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환영하며, 금융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규제 및 감독 방법도 보다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식한다. 이 위기는 또,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기준의 필요성 및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금융·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을 환영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행동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공통 원칙을 강하게 지지한다.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 부의 과급효과의 회피, 신흥 및 발전도상 경제에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흥 및 개발도상 회원국의 입장과 대표권의 증대를

반영시켜, 장래의 과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관의 포괄적인 개혁 및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유시장의 원칙과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로 세계 성장과 고용 및 빈곤의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의 공고한 신념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미주 개발은행 및 그 외의 국제 개발 금융기관이, 금융 위기에 의한 영향을 받은 회원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점과 충분하고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번 경제 위기를 구실로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강하게 지지하여, 향후 12개월간 투자,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 수출제한의 도입이나, 수출촉진 조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삼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DDA협상의 균형 잡힌 타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 달 세부원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각료들에게 12월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APEC의 주요 원칙 및 추진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롭고 열린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우리의 합의(commitment)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APEC의 각료 및 실무자에 대해, 장기적 전망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우리의 지역경제 통합 어젠더에 포함된 조치의 이행을 진전시켜, 구조개혁 작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다.

오늘날의 성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동, 에너지 안보 및 청정 개발, 빈곤, 기아, 질병 및 테러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역내 중요한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결의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개발원조(ODA) 및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포함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국제 합의(commitment)를 견지 한다.

최근행사

20th APEC Ministerial Meeting 제 20차 APEC 각료회의

(2008. 11. 19~20, 페루 리마)

페루 APEC 제 20차 APEC 각료회의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양일간 페루 리마(Rima)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1년간 APEC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다.

1. 세계 금융위기

회원국들은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조를 통한 대응을 확보하는 것이 APEC 회원국들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경제침체와 관련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이 이번 경제 위기를 구실로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G20 워싱턴 정상선언 지지 및 새로운 무역장벽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WTO/DDA 타결 촉구

APEC 각료들은 현 금융위기 하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더욱 요구되며, 이에 금년 내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의 위해 제네바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지역경제통합 강화

본 회의에서 각료들은 2007년 REI 보고서상 53개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 정상회의에 이행보고서 제출과 2009년 이후의 REI 구체적 의제 제안을 위해 논의하였다. FTAAP 관련하여서는 쟁점목록 및 기존연구 분석, 역내 지역/자유무역협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승인하고, FTAAP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의 기여 등 여타 REI 의제를 보완하고 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고위관리들에게 2009년 중 FTAAP의 경제적 영향, 혜택 및 도전요인에 관한 추가연구를 지시하였다.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구조개혁관련 제도에 대한 자발적 또는 자체점검을 개시기로 한 결정과 경제위원회의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외장(LAISR)” 진전 노력을 환영하였다.

4.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역내 거래비용의 5% 추가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 이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행평가지표(KPI)와 보고방법 개발 관련 진전 사항을 평가하였다. 각료들은 고위관리들에게 공인 국제표준을 사용한 무역 시스템의 호환성 강화를 위한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s)” 이행 가속화와 2009년 통상장관회의까지 이행평가지표 및 보고방법론 개발을 지시하고, 역내 양자투자협정 및 기존 FTA상 투자관련 핵심 사항에 대한 연구진행을 환영하였다.

각료들은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 가이드라인의 계속적 이행, 유선신호 무단도용 방지 해결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하고, “특허 취득 절차에 관한 APEC 협력 구상”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재권 교육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지난 10여 년간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확인하고 동 협정 유지를 위한 공조에 합의하였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각료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CSR에 대한 인식제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ABAC를 포함한 APEC 차원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상들이 역내 CSR 축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6. 아태 식량안보 향상

각료들은 식량가격 불안이 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 통상장관회의까지 APEC 식량체제(AFS)를 검토·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PEC 고위관리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식량 보존·운송·유통체계의 모범사례 개발 및 장려에 있어서 협력을 지시하였다.

7. 경제기술협력

본 회의에서는 능력배양을 위한 여타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의 협력 전략을 승인하고, 대테러임무단과 긴급사태대응임무단의 활동기간 연장, 관광실무그룹, 여성네트워크,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독립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2008년 경제기술협력 관련 77개의 APEC 프로젝트와 러시아와 홍콩의 각 50만불 APEC 지원기금(ASF) 기여를 환영하였다.

8. 반부패 및 투명성

APEC 회원국들은 부패 및 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리마 반부패 선언” 및 “부패척결을 위한 APEC 민·관 행동 지침”을 승인하였다. 또한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9. 인간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각료들은 테러, 대량살상무기 및 운송수단의 확산이 자유, 개방, 번영이라는 APEC 비전에 계속적인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대테러임무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통해 금융테러, 식량공급망 보호, 항공안전, 무역거래회복 지원 등 APEC 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대테러임무단의 무역복구프로그램 개발의 진전사항을 평가하였다. 금융행동특별임무단(FATF)의 특별권고를 포함하여 UN 반테러 조치의 시급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제6차 교역안전회의(STAR) 등 역내 교역안전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테러단체의 해체, 핵, 대량살상무기 및 운송수단의 확산 예방, 폭력을 옹호하는 극단적 원리주의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긴급사태 대응 모범사례와 능력강화 필요성에 대한 현황 평가를 환영하고, 2013년까지 연례 “재난관리 CEO 세미나” 개최 제안 승인하였다. 긴급사태대응반(TFEP)의 재난피해 감축,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전략 및 재난대응 및 공조에 관한 APEC 원칙의 채택도 환영하였다.

조류·인간 독감, 매개체로 인한 질병, HIV/AIDS 등의 억제 노력 및 보건 정보기술 공유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WHO 프로세스를 지원 및 보완하는 형식으로 APEC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 식품안전협력 포럼”(FSCF)의 출범 및 식품안전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동 포럼의 노력을 환영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FSCF 교육훈련 네트워크”(FSCF PTIN) 설립 승인 및 제1, 2차 FSCF PTIN의 활동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정상들에게 UN 기후변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2009. 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형평성 있고 효과적인 post-2012 국제협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아·태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APNet) 및 “아·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복구 네트워크”의 설립을 환영하고 저배출 기술개발, 이전 촉진 및 청정기술 펀드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협력 및 능력강화를 지지하였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에너지 자원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PEC 회원국들이 “APEC 에너지 무역·투자 연구 및 라운드테이블” 결과에 호응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자발적 APEC 에너지 효율성 검토회의의 이행을 환영하고, 에너지 안보, 경제적 경쟁력,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의 지속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10. APEC 제도 개혁 및 행정 이슈

각료들은 APEC 프로젝트 승인 관련 개혁 조치를 승인하고, 전략적이고 보다 균형잡힌 능력개발 장기 프로젝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 4회의 프로젝트 승인절차 및 신속한 사업예산 지불 방안을 도입하고, 전문직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또한 APEC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한 회의일정 변경과 APEC 정책지원부서(PSU) 설치를 환영하였다. 2008년 SOM 작업계획 보고를 승인하였는데, 특히 2009년 예산 승인 및 사무국의 환위험 완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지지하고, 싱가포르의 2009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환영하였다.

15th Finance Ministers' Meeting 제15차 재무장관회의

(2008. 11. 5~6. 페루 트루히요)

제 15회 APEC 재무장관회의가 2008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페루 트루히요(Trujillo)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각 회원국 재무장관 및 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ADB), 안데스개발공사(ADC), APEC 기업인 자문위(ABAC)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각료들은 세계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과 지역경제발전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현 규제·감독 제도가 이러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회원국들은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규제 및 감독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금융안정화포럼(FSF)의 권고와 신용시장에 대한 G20 Study Group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회원국들은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 공공지출의 질적수준 향상

장관들은 재정 위험관리에 대한 도전,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적인 도구는 비용예산(results-based budgeting : RBB)라는데 공감하고, RBB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보다 효과적인 공적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목표설정형 지출(targeting expenditure)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3. 자본 시장의 개혁

장관들은 현 금융혼란에 주목하면서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건전한 자본 시장의 확보를 위한 법과 규제의 강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역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기타 이슈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중요한 글로벌 도전 중에 하나라는 점에 주목 하고, 본 이슈가 환경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회원국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하는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향후행사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9. 2. 13~26 싱가포르)

연락처 : 이동규 서기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6th APEC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제6차 교통장관회의

(2009. 4. 27~29 마닐라, 필리핀)

연락처 : 남경웅 국제협력담당관 / 국토해양부

Tel : 2110-8108

최근행사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SOTR) Press Release

(2008. 11. 21. 페루 리마)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APEC정상회의(2008년 11월 22-23일) 및 관련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의 리마에서 11월 19일 10시(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정치 현황을 평가하는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SOTR Report)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2009년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은 1.2%로 2007년과 2008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별로 미국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5%로 경기후퇴가 예상되나 2010년에는 2.4%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며, 일본은 2009년에 올해수준인 0.9%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며 2010년에는 1.8%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은 정부지출 등 내수 강세를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도 8~9% 성장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GDP 성장률이 이 예측치보다 1~2 퍼센티지 포인트만 하락해도 대규모 해고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남부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PECC는 ‘아태경제통합지수(Composite Index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를 새로이 개발하여 1989년 APEC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아·태 지역에서 경제통합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PECC의 아태경제통합지수로 살펴볼 때,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은 1991년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진전되었으며 2001년의 IT 거품 붕괴 이후 약 3년간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2004년과 2005년 다시 통합의 진전을 보였다. 현 금융위기가 통합지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게 될 지가 향후 지켜볼 만한 관심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태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경기침체(83%), 은행권 및 금융부문의 위기(78%), 자산가치의 급락(69%)이 1,2,3위를 차지하였다. 2008년도 APEC 정상회의가 토의해야 할 의제로 미국의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에의 영향을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와 WTO 도하개발 어젠다를 선택하였다. 응답자들은 2, 3위를 차지한 무역 관련 의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지도 면에서는 1순위를 차지한 금융위기 의제와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80% 가량의 응답자들이 향후 12개월 간 미국 경제가 “크게 악화(much weaker)” 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12%만이 동일한 응답을 선택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16%가 “크게 악화”, 65%가 “다소 악화(somewhat weaker)”를 예상하였으나,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각각 46%와 47%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는 PECC가 세 번째로 실시한 것이며 아·태 지역에서 500명가량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였다.

KOPEC

최근행사

KOPEC 아태경제협력고위자문회의

(2008. 10. 28.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25인의 고위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아태경제협력고위자문회의’를 발족시키고 이분들

을 초청해 10월28일 저녁시간에 만찬간담회 형식으로 제1차 아태경제협력고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아태경제외교: 목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이홍구 前국무총리, 한덕수 前국무총리, 김기환 KOPEC 명예회장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위시해 10인의 고

위자문위원, 10인의 KOPEC 임·위원 및 정부 측의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통상부문 주제발표), 기획재정부의 신계윤 국제업무관리관(금융부문 주제발표)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는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추진과 APEC과 국제금융협력외교의 두 주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어 한국의 대외경제외교전략 전반을 논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KOPEC-SFF 국제컨퍼런스

(2008. 11. 4.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서울파이낸스포럼과 공동으로 '세계금융위기와 아태지역의 국제금융중심지 경쟁: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도전과 대응과제(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Asia and Korea)' 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11월 4일 개최하였다.

권혁세 금융통화위원이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대독으로 '세계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개혁프로그램(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s Financial Reform Program)' 를 주제로 기조연설 하였으며, 리처드 답스(Richard Dobbs) 매킨지 코리아 시니어 파트너는 '세계금융중심지의 금융개혁 전망과 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Prospects for Financial Reform in Global Financial Centers and Implications for Asia and Korea)' 을 주제로 특별연설 하였다. 또한 금번 컨퍼런스에 최근 완성된 아태지역 국제금융중심지 경쟁에 관한 KOPEC 보고서가 발표되어 토론의 배경 자료로 활용되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아태지역, 특히 한국에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을 포함해 이들 국가들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2008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6차 회의

(2008. 11. 11.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IIE)의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미국 신행정부의 아시아와 한국 및 북한에 대한 정책(U.S. Policies towards Asia, Korea and North Korea, under the New President)' 을 주제로 2008년도 제6차 아·태전략포럼 회의를 개최하였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한 및 남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여전히 지지하지만,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KORUS FTA 관련해서는 오바마가 FTA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현 미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의회에서 곧바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서 오바마의 차기 정부 구성을 예측하며, 2009년도 오바마 신행정부가 확정되고 의회와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 해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 및 KORUS FTA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두며 북한의 미래와 주변국들의 대처방안,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쟁점과 의회 비준과정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관련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더욱 지켜 봐야겠지만 결국 불능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주변국들 간 군사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FTA 지지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KORUS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양측 의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출판물



- ◆ APEC e-Trade and Supply Chain Management High-Level Training Course, November 2008
- ◆ APEC e-Trade Hub Reference Model Design and Development, July 2008
- ◆ APEC Seminar on Trade Logistics, June 2008
- ◆ APEC Training Course on Anti-Dumping, July 2008
- ◆ Basic Workshop on Good Clinical Practice (GCP)/ Clinical Research Inspection, May 2008
- ◆ Capacity Building for Sharing Success Factors of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November 2008
- ◆ Capacity Building Training on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for APEC Developing Member Economies, June 2008
- ◆ Case Studies of How to Plan and Implement Standards Education Programs and Strategic Curriculum Model, March 2008
-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nergy Initiatives in the APEC Region Scope and Elements, 2007
- ◆ Urban Transport Energy Use in the APEC Region, 2007
- ◆ Implementation of the APEC Action Plan on Prevention and Response to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 Progress Review and Building Capacity for Future Work, June 2007
- ◆ APEC High-Level Public-Private Policy Dialogue on the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Melbourne: 26-27 April 2007
- ◆ APEC e-Trade and Supply Chain Management-Presentations, March 2007
- ◆ APEC Symposium on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May 2007
- ◆ Alliance in Practice: Building the Core of Trade Promotion, March 2007
- ◆ Liberalisation of Air Services in the APEC Region, 1995-2005, January 2007
- ◆ Proceedings of Capacity Building Seminar on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APEC, December 2006
- ◆ Development of "APEC Guidance for Electronic Commerce", Using the Best Practices of E-government Procurement Systems, December 2006
- ◆ 2006 APEC Perspectives
- ◆ 2006 Key APEC Documents
- ◆ Driving Forward a Prosperous and Harmonized APEC Community, November 2006
- ◆ 2006 APEC Economic Policy Report, November 2006
- ◆ 2006 APEC Economic Outlook
- ◆ Evaluation of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ased Lines in the APEC Region (November 2006)
- ◆ 2006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PEC Secretariat to the 18th APEC Ministerial Meeting (November 2006)
- ◆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Proceedings (November 2006)
- ◆ Workshop on Effective Strategies for IPR Public Education-Proceedings (November 2006)
- ◆ APEC IPR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Platform (November 2006)
- ◆ Enhancing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tage 1): Reducing Barriers to Investment across APEC to Lift Growth and Lower Poverty (November 2006)
- ◆ APEC Review on Counter-Terrorism, 2001-2006 (November 2006)
- ◆ APEC Customs-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s, September 2006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kimhs@kiep.go.kr
Tel : 02-3460-1096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jt@apec.org
Tel : 65-6775-6013
Fax : 65-6775-6012

-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SEAS, 2008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 Finance Forum CD: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Community Building

-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Outlooks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3, 5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APEC HOME PAGE
<http://www.apec.org>
PECC HOME PAGE
<http://www.pecc.org>

향후행사일정

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Feb 2009		
13-26 Singapore	SOM I and Related Meetings	
March 2009		
25-26 Osaka, Japan		2009 State of the Region(SOTR) Meeting
April 2009		
27-29 Manila, Philippines	APEC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